남성들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 즐긴다

:: 김 상 진 우먼타임스 취재부장

국내 HIV감염의 98%는 성접촉을 통해서이고, 전체 감염인 중 90% 가량이 남성이다. 이것은 한국 남성의 성문화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여성에 비해 9배나 많은 수의 남성이 감염이 될 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 남성의 성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서울역 건너편, 힐튼 호텔 자리 일대에는 집창촌이 있었다. '양동'이었다. '양동'은 청량리, 용산 등 역 주변에 형성된 집창촌의 대표격이었다. 1984년 초여름의 어느 날, 대학 신입생이었던 필자는 양동의 한 허름한 목로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양동 언저리에 도착할 때부터 가벼운 흥분이 머릿속을 떠돌고 있었다. 대여섯 명이었던 우리는 한 친구녀석을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머무는 지붕 낮은 한옥에 밀어 넣고 목로주점에서 기다리는 참이었다.

그런 짓을 '꼭지를 뗀다'고 표현했다. 스무 살 부렵의 우리는 군 복무를 하다며 국방부가 보내온 입영통지서를 받은 친구녀석의 '총각꼭지'를 떼 주기 위한 이벤트를 했던 것이다. 아마도 수음이나 하는 게 성생활의 전부였을 대부분의 친구들은 '꼭지'를 떼고 올 녀석을 기다리며 묘한 느낌에 사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귀가하는 버스에 몸을 싣었을 때 뭔지 모를 자괴감이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또 다른 기억 한 토막. 1986년 초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임진강 전진교 부근에 있는 한 부대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시작한 필자는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분대원들과 함께 외박을 나올 수 있었다.

사소한 자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문을 나설 때부터 가슴이 뛰었다. 문산에 사는 민간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특히 '여자 민간인'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할 일도 없이 문산 읍내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맞은 저녁 무렵, 분대장과 고참 병장이 의기투합했다.

일석점호란 군대 내무반에서 취침 전 인원파악을 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상적 행사를 뜻한다. 그런데 외박 나온 군인들이 무슨 '일석점호'란 말인가. 햇병아리 이등병인 필자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분대원들에 이끌려 문산 읍내 한 골목에 들어서서야 '일석점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고참 병장이 정육점 불빛이 켜진 유리문 안에 가지각색의 옷차림을 한 성매매 여성들을 훑어보며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고 흥정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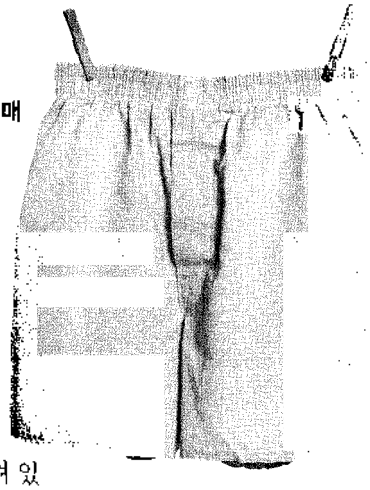
성매매 업소 출입을 남성세계의 진입인 양…

한국 남자들이 성매매 업소와 인연을 맺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 대학과 군대와 직장, 어디에서나 남자들은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는 것이 남자들의 세계를 만드는 것인

양 받아들이는 문화에 젖어 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멀쩡한 회사원들의 마지막 회식 장소가 해괴한 쇼를 감상하는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가 되기도 했고, 청량리 588의 하루 손님이 5000명 이상이라는 추산이 횡행하던 시대도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의 한복판, 시청 건너편 북창동 일대가 남자들의 밤 문화 명소로 떠올랐고 "을지로 일대에 가면 러시아 '백마'를 탈 수 있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최근에는 회현동 일대 여관에서 성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 군산 집창촌에서 두 번씩이나 화재사건이 일어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가 언론을 장식했다. 첫 번째 화재 때 현장 취재를 했던 후배 기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처해 있는 환경이 반 인권적인 것을 떠나 보건의료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혀를 찼다.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성매매 유혹은 도처에

성매매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유흥업소에서 2차는 손님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외박을 뜻하고 동네마다 있는 이발소 중 적지 않은 업소가 본래의 이발은 뒷전이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장이 몰려 있는 빌딩가와 번화가에 버젓이 '스포츠 마사지'라는 건강해 보이는 성매매업소가 밤낮으로 손님을 받는다.

일부 상업적인 매체도 문제다. 소위 남성매체들은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접근을 돕고 있다. '일요XX' 등 주간지에는 성매매 업소를 잠입취재해 보도한다는 핑계로 어디에 가면 어떤 성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기에 바쁘다.

그뿐만이 아니다. 보바일의 대중화 이후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마사지' 전단지가 길거리에서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다. 찾아가는 성매매 서비스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하룻밤 쾌락의 풋사랑을 즐기는 '원 나이트 스탠드'는 물론 '원조교제' 대중화까지 불러왔다.

성매매에 노출된 남성 누구나 HIV 감염 가능

기자로 근무한 10여 년 동안 필자는 성매매와 관련한 많은 취재를 한 바 있다. 한 때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 남자 대부분은 성매매가 실정법 상의 범죄임을 알기는커녕, 숱한 성매매에 노출돼 남성다움을 공유하는 기회로 여겨왔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일었지만 여전히 한국 남자들의 성문화는 음침하다. 성교육은 여전히 근대적이고 성 정보는 차단되어 있다. 건강하지 못한 성이 넘쳐난다. 그 와중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

에이즈는 특별히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이 걸리는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 천만에 말씀이다. 한국의 성매매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성매매가 인류의 직업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의 한 왕비가 공창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한편에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추방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남성들을 상대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은 아직도 소수의 움직임일 뿐이다. 여전히 많은 남자들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매매를 경험한다.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가질만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들은 선배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남자라면 그 정도 성매매 업소 출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엉터리 교육을 받는다.

남자인 필자가 남자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최소한 무엇이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 가는 일인지.

언제나 그랬듯 오늘 한국 남자들의 성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형국이다.